



무재해 EESH 시스템 LG실트론의 기반

산업안전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이념을 초우량 전자 소자 회사로
우뚝 서기 위한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LG실트론은 초우량 기
업을 향해 이천을 시작으로 기지개를 편다.

OSHAS 18001과 KOSHA 18001을 2002년 12월 통합인증을 받으면
서 기존 ISO 14001과 재통합하여 ESH경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
고, 2003년 상반기부터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EESH 시스템은 LG실
트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경영안전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그 중 이번호에 EESH 시스템(안전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1. EESH IT란

EESH(Energy, Environment, Safety, Health) 시스템은 LG실트
론 이천공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으로 근로자들
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특히, 안전분야에 있어
는 전사원이 참여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안전 시스템이다.

2. EESH 안전분야의 구성요소

EESH 안전관리분야에서는 안전정보, 아차사고사례, 작업허가서 관
리, 사전 ESH 심사, 가동전 ESH 점검, 소방시설관리, 보호구 현황,
E-안전환경, 3MY운동, 안전일지관리, 안전일반 총 11개로 이 중 가
장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안전작업허가서 관리”는 이천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를 안전
하게 시작해서 끝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공사시작 3일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EESH에 작업허가신청을 하면,
안전환경팀에서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성 검토와 조치사항을 내리며,
해당부서에는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자에게 모든 조치를 취하는 사전 안전 확보 체계이
다. 또한, 공사중 안전장구 미확보 및 사내 안전규정 미준수시 적발 즉
시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협력업체 사후관리 시스템”에 통보하여 적
색업체로 관리된다.

나. 사전 ESH 심사

사전 ESH 심사는 공장내 신·증설, 폐쇄, 이관 등의 장비 또는 공정
변동에 따른 제반 법규 충족여부, Utility, 환경부하량, 약품사용량,
위험요소 증감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체계로써 해당 공정 및 약품의 구



때 이전에 “전기, 용수, 연료, 공조,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 안전 부문에 대해 사전영향 조사를 의뢰하고, 각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에 의해 적·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에 의거 충족된 경우 공장내 환경 및 위험 총량에 등록하고, 미충족의 경우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강력한 ESH 시스템이다.

다. 가동전 ESH 점검

사전 ESH심사를 거쳐 장비 및 약품이 들어오게 되면, 8개 담당부서에서 영양평가서 제시한 문제점 해결여부 확인, 장비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사전 ESH 심사를 충족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더욱 활성화를 추진할 부분이다.

라. E-안전환경

공정내 불안전 요소를 실시간으로 도출, 개선시켜 상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으로 EESH의 핵심 운영체계이다. 안전환경팀원 및 관리감독자가 안전위험요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위험사항을 EESH 시스템에 등재하고, 시정 조치토록하면 이는 해당 공정 팀장에게 전달되어 개선조치계획을 통해 조치완료토록 한다. 만약 개선계획이나 조치가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공장장에게 전달되고 또 3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사장에게까지 보고되어 강력한 시정조치를 받는다. 이렇게 개선된 불안전요소들은 방대한 양의 안전개선활동의 Data로 축적되어 안전교육 및 활동에 있어 살아있는 교육교재로 가치를 발휘한다.

마. 3MY 운동

각 Line 반장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자율 안전 활동이다. 공장의 3정 5S운동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3MY운동은 통제와 관리가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이 아닌 타부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이끌어 간다는데 특징이 있다. 안전의 목적은 자율안전, 이는 안전환경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동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3. EESH 시스템이 기반이 된 현상

어떤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

려는 의지의 정도가 성공을 갈음한다. 그렇다고 보면 이곳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김희수 공장장의 “생산의 기반은 안전이다. 안전없이는 생산도 없다”라는 확고한 안전 마인드는 체계화된 EESH 시스템과 금년도 재인증을 받는 OSHAS 18001과 KOSHA 18001을 빠르게 이천공장에 정착시키는데 초석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곳 이천공장에 EESH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였을 때에 현장으로부터 거부감에 누락되는 부분도 많았으나 본 시스템을 받아들

이려는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다고 안전환경팀의 김동현 안전관리자는 말한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지금 LG실트론에는 지난 4월 무재해 6배를 달성하고 현재 무재해 7배가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가동후 ESH 심사”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작업허가서 관리 분야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첨가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으로 무재해 10배를 넘어 안전하고 튼튼한 LG실트론 이천공장이 되겠다는 것이 이곳 분위기이다. 

〈최종덕 기자〉

